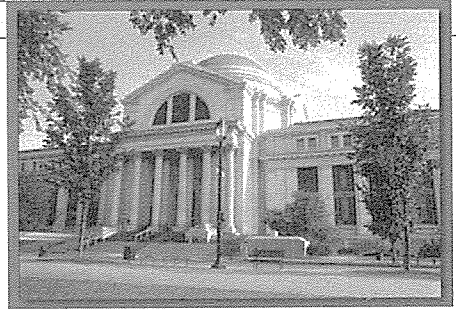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 세계 최대 자연사표본 소장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전경

9. 11 테러 참사가 일어났던 미국 워싱턴시의 국회의사당 앞 워싱턴 광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사분야 전시품을 자랑하는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이라고 부르는 이 곳은 '스미소니언연구소'의 16개 국립박물관(이들 중 '디자인박물관'과 '아메리칸인디안 박물관'은 뉴욕에 위치함)과 '국립동물원(National Zoo)'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박물관으로는 여러 화랑 이외에도 핑크색의 대리암과 유리로 지어진 '우주항공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을 들 수 있는데, 이 곳에는 어린이들이 우주정복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플라네타리움(Planetarium)'이 있으며, 23개의 전시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와 함께 우주항공 기술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농기구, 의류, 화폐, 자동차, 악기, 선박, 기차, 세라믹 등 미국의 문화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시품을 갖추고 있는 '미국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은 미국 과학기술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1865년 화재로 소장품 소실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1855년에 완공된 스미소니언연구소 본관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광물·암석·운석, 화석, 동·식물, 유물 등 1억2천만점 이상의 자연사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남북전쟁 말기인 1865년에는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표본과 연구물들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기

도 했지만, 그 후 각 분야별 연구원들의 야외 채집 활동과 대학 및 연구소 또는 개인 수집가로부터의 수증을 통해 다시 수많은 희귀 표본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1911년에는 중앙에 37.5 m 높이의 돔형 전시관(면적 4만5천km<sup>2</sup>)이 건축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 건물의 좌·우측에 7층 높이의 연구동이 증축되면서 총 면적이 9만km<sup>2</sup>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동쪽 연구동은 지질학분야, 서쪽 연구동은 생물학분야의 연구실이 있으며, 일부는 인류학분야의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다.

3층 건물의 전시관 지하층에는 강당(auditorium), 카페, 기념품 판매점이 있으며, 특별전시실과 아이맥스영화관이 있는 1층에는 고생물학과 인류학 분야의 전시품이 있다. 중앙의 홀(Rotunda)에 들어서면 키 4.5 m, 몸무게 8 ton에 달하는 현생 아프리카 코끼리를 만나게 되고, 20여개의 전시실에는 지금까지 최고(最古)의 화석으로 알려진 약 35억년 전의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 화석을 비롯하여, 쥘라기-백악기의 공룡 골격화(*Diplodocus*, *Allosaurus*, *Tyranno-saurus* 등), 신생대의 각종 포유동물 및



1층 중앙 홀의 아프리카 코끼리 디오라마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암석·광물·운석, 화석, 동식물, 유물 등 1억2천만점 이상의 자연사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수집된 표본을 최적의 상태로 전시·보존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이 자랑이다.

다양한 식물화석들을 볼 수 있다. 또한, 탐구관(Discovery Room)에서는 어린이들이 악어의 입속에 머리를 직접 밀어 넣어 보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의상을 입어 볼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광물, 화석, 동물의 이빨, 식물표본 등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어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코너이다.

‘화석표본 제작실(Fossil Lab)’에서는 고생물학자들이 직접 암석에서 화석을 추출하거나 화석의 복제품(replica)을 제작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 5억2천만년 전의 ‘버제스셰일 화석군(Burgess Shale Fauna)’ 코너와 ‘해양생태계’ 코너처럼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실물처럼 복원한 디오라마들은 과거의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인류학 코너에는 인류의 진화과정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해역, 북미 및 중남미의 문화와 유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으며, 한국의 불상과 사랑방도 소개되어 있다.

### 세계 최고 연구원 2백여명

2층 전시관은 주로 지질학과 생물학 분야의 전시물로 꾸며져 있는데, 지질학 분야에는 세계 최대(45.52캐럿)의 호프 다이아몬드(Hope Diamond)를 비롯한 희귀 보석류와 수많은 광물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생물학분야는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는 ‘곤충생태관(Insect Zoo)’, 약 80여종의 나비가 살고 있는 ‘나비생태관(Butterfly Habitat Garden)’, 동물의 골격을 비교 전시한 ‘골격관(Hall of Bones)’,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Amblyrhynchus cristatus*) 등을 전시한 ‘파충



지질학과 생물학 분야의 2층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호프 다이아몬드(Hope Diamond)

류와 양서류’ 코너 등이 특징적이다.

한편, 인류학분야의 전시에서는 남미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서구문명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사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훌륭한 연구시설과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2백여명의 연구원 이외에도 수집된 표본을 최적의 상태로 전시·보존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은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특징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항상 충분한 연구·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새로운 전시품을 제작·교체함으로써 자연사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도 매년 수많은 방문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및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이 곳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

李 貞 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